

문화접변유형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여가활동 선호 및 참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eisure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 of
Female Immigrants for Marriage in Korea:
Using Berry's acculturation Types

權 裕 弘**

Kwon, Yoo-Hong

ABSTRACT

Based on the Berry's acculturation perspective, this study explored the leisure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a questionnaire survey of 826 women marriage immigrants from China, Mongolia, Vietnam, and Philippine. Results showed that the respondents preferred to participate in diverse recreation and leisure activities except for hedonic ones. Also, the respondents' we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sports and cultural activities, which suggested big differences between leisure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 among the respondents. Cluster analyses identified four acculturation groups of the immigrants: integrated group, assimilated group, separated group, and marginalized group. Results revealed that the integrated group had the highest level of leisure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 while the marginalized group had the lowest level of leisure preference and participation. Consistent with the acculturation perspective, the respondents who had the greater levels of their own ethnic and Korean cultural orientations were likely to had positive leisure life. Practical implications and research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

핵심용어(Key words) : 문화접변(Acculturation), 여가선호(Leisure preferences),
민족(Ethnicity), 여가참가(Leisure participations)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B00909)"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교수. e-mail: yoohong@hallym.ac.kr

I.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처음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관심은 최근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이 급증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과 복지 등 다문화사회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전환되는 듯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은 다문화가정의 여가권익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은 이미 110만 명을 넘어섰으며(행정안전부, 2009), 결혼이민여성은 2010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120,831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으로 외국인근로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집단이다. 통계청(2007)에 따르면 2007년도 국내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은 11.1%를 차지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전체 결혼의 1/3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외국인 아내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민여성은 국내에서 일정 기간만을 체류하는 근로자나 유학생과는 달리 한국 사회의 시민이자, 한국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에 수립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이 주요 정책 과제로 반영된 바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은 물론 언어, 음식 등 문화적 차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설동훈·윤홍식, 2008; 고숙희, 2008).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회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여가환경의 마련이며,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여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가활동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발을 위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촉진하는 수단(Hibbler & Shinew, 2002; Yu & Berryman, 1996)이며, 포스트모던시대에서는 사회정의패러다임(social justice paradigm)이 분배의 문제를 넘어서 소수민족의 여가를 위한 제도적 여건까지 포함한다(Allison, 2000).

본 연구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여가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접변(accluturation)의 관점을 채용하고자 한다. 문화접변은 나이, 교육과 함께 이민자들의 여가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Floyd & Gramann, 1993, 1995; Floyd, Gramann, & Saenz, 1993; Shaul & Gramann, 1998; Christenson, Zabriskie, Eggett, & Freeman,

2006). 또한 민족 여가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준거 틀로 활용되는 민족성가설 (ethnicity hypothesis)과 주변성가설(marginality hypothesis)의 두 가지 시각을 포함하면서(Floyd *et al.*, 1993; Gramann & Allison, 1999) 소수민족의 여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Floyd, 1998; Floyd & Gramann, 1993).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민여성의 여가행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여가를 유형화하고, 문화접변유형 집단에 따라 어떤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참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접변유형 집단 간에 어떤 인구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결혼이민여성의 여가복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민자 여가연구에 대한 본격적 관심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미국이다. 초기에는 인종 간 불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백인과 흑인 간 여가활동 참가에서의 불균형이 주요 연구주제로 대두되었다(Floyd, Bocarro & Thompson, 2008; Freysinger & Harris, 2006; Gramann & Allison, 1999). Washburne (1978; Gramann & Allison, 1999과 Gomez, 2002에서 재인용)의 민족성가설과 주변성가설¹⁾이 인종 간 여가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준거 틀로서 많이 활용된 반면, 연구 모형이 너무 단순하고 연구결과의 일관성 또한 부족하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Gramann & Allison, 1999; Freysinger & Harris, 2006).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다른 인종과 민족에 관한 여가연구가 증가하였으며, 연구주제 또한 다양한 민족문화집단(ethnocultural group)이 여가활동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들이 여가활동에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등 다변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사회계층과 민족문화집단의 상호작용은 물론 성(sex)이나 나이와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를 함께 사용한 연구방법이 많이 시도되었으며(Hibbler & Shinew, 2002; Lee, Scott & Floyd, 2001; Riddick & Stewart, 1994 등), 이론적

1) 민족성가설은 여가참가에 있어서 민족 간 차이는 “가치체계, 규준 및 여가사회화의 기능(Gramann & Allison, 1999: 290에서 인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주변성가설은 빈곤과 사회경제적 차별 때문에 소수민족의 여가참여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측면에서도 제약(constraints), 차별(discrimination), 접촉(contact theory), 사회정의(social justice), 지각된 편익(perceived benefits)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인종이나 민족문화집단 간 단순 비교연구보다는 이민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문화접변 또는 동화를 이론적 틀로 활용한 연구가 Floyd와 Gramann(Floyd & Gramann, 1993, 1995; Floyd *et al.*, 1993; Shaull & Gramann, 1998), 그리고 Stodolska (Stodolska, 1998; Stodolska & Alexandris, 2004; Stodolska & Yi, 2003)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접변의 개념 및 측정과 관련된 이슈를 먼저 살펴본 후 문화접변이 여가연구에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겠다.

1. 문화접변

문화접변(acculturation: 문화적응 또는 문화변용이라고도 함)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문화접촉 상황에서 적응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다(정진경·양계민, 2004). 유럽인의 식민지 지배가 토착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속에 개념이 등장했으나 점차 이민자의 정착과정에서의 변화로 관심이 옮겨졌으며, 최근에는 민족문화집단이 다문화사회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변화하는지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Berry, 2003).

문화접변이란 Redfield, Linton & Herskovits(1936; Berry, 2003: 18에서 재인용)의 정의에 따르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들이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문화형태가 변화하는 현상”이다. 초기에는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문화접촉 시 나타나는 집단 수준의 변화를 일컫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지만 후에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 개인수준에서의 변화로 개념이 확대되었다(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접변과 뚜렷한 구별 없이 혼용되는 개념으로 문화동화(assimilation)가 있다. 이는 문화적응 연구의 핵심적 이슈로서(Berry, 2003; Mendoza & Martinez, 1989) 문화적응을 단일차원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가²⁾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즉, 문화적응 과정을 새로운 환경에 적

2) 일차원적 시각의 대표적 연구자 및 척도로는 다음에 설명할 Gordon(1964; 이주연, 2008에서 재인용)과 SL-ASIA를 들 수 있으며, 다차원적 시각으로는 Berry(2003)나 Lieber,

응하기 위해 본국에서부터 가졌던 이전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류국가의 새로운 가치로 대체하는 문화적 동화과정으로 이해할 것인가, 또는 자기민족과 주류국가 양쪽의 가치체계나 행동적 특성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하는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차이이다. 초기의 연구들은 동화를 문화적응이 가장 잘 이루어진 상태로 여겼으며, 문화적 동화, 주류사회의 구성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구조적 동화를 거쳐 혼인적 동화, 정체성 동화, 태도 수용적 동화(편견부재), 행동 수용적 동화(차별부재), 시민적 동화(권력 및 가치갈등 부재)에 이른다고 하였다(Gordon, 1964; 이주연, 2008; Floyd *et al.*, 1993 & Stodolska, 1998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문화적응을 다차원 모형을 통해 설명하는 추세이며, 특히 자기 민족 고유문화의 보존과 주류문화의 수용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Berry(2003)의 2차원 모형이 많이 활용된다(양옥경·김연수·이방현, 2007; 조복희·이주연, 2006; Barry, 2001; Chia & Costigan, 2006; Gurung & Mehta, 2001; Kim & Wolpin, 2008; Kwak & Berry, 2001). 이모형에서는 “이민자들이 자기 민족 문화와 정체성의 보존을 중요시 하는가?”와 “주류문화의 수용 및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통합(integ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문화접변 유형이 제시된다.

먼저 동화유형은 자기 민족 집단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태도이며, 분리유형은 반대로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을 거부하면서 민족 문화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이어나가면서 주류사회에도 적응하는 경우를 통합유형이라고 하며,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주류사회와의 관계나 주류문화의 습득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는 주변화유형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합유형이 문화적응에 가장 우수한 반면, 주변화유형이 가장 뒤떨어지고, 동화와 분리유형은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rry, 2003; Christenson *et al.*, 2006; Eyou, Adair & Dixon, 2000).

문화접변을 측정하기위한 척도는 매우 다양하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문화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SL-ASIA는 문화적응을 언어, 정체성, 친구 선택, 행동, 이민 몇 세대인가와 태도로 측정하고 있다(Barry, 2001; www.columbia.edu/cu/ssw/projects/pmap). 반면, 다양한 민족들에게 적용하기 위

해 Phinney(1992; Gurung & Mehta, 2001과 Phinney & Ong, 2007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MEIM에서는 민족 정체성(소속감, 정체성 함양과 민족 고유 행동)과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측정하고 있다. 한편 Kwak & Berry(2001)는 문화적 전통과 언어, 결혼에 대한 태도를 Berry(2003)가 주장한 네 가지 문화접변 유형별로 구분하여 측정했으며, EAAM(Berry, 2001) 또한 네 가지 접변유형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 것은 동일하나 질문 내용이 사회적 접촉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용이함)에 있어서 태도와 행동적 측면을 측정한데 차이가 있다.

문화접변의 척도가 이와 같이 다양한 이면에는 앞서 설명한 문화적응에 대한 개념화의 문제가 있으며, 측정범위에 있어서도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문화적 관습과 사회적 관계, 태도와 행동(또는 인지·정서·행동적 측면), 지식과 선호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Berry(2003)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두 요인(민족 정체성 유지와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 정도)을 측정하여 네 가지 접변유형으로 구분하는가 아니면 접변유형 각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것인가³⁾에 따라 상이한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2. 문화접변과 이민자 여가연구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문화접변은 이민 역사가 길지 않은 민족문화집단의 여가연구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loyd, 1998). 문화접변의 시각에서 미국 내 이민자의 여가를 고찰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다양화 추세가 발견된다. 즉, 문화접변 관련 이민자 여가연구의 초기 주제는 문화접변에 따른 여가활동과 방문지역에서의 차이 규명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여가제약, 여가동기 등과의 관계가 분석되고 있으며, 연구대상 또한 멕시코계 미국인에서 다양 민족문화집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Christenson *et al.*(2006)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가 문화접변을 문화동화에 이르는 일차원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Carr & Williams, 1993; Shaul & Gramann, 1998; Wolch & Zhang, 2004)에서는 문화접변을 언어적 측면만으로 평가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문화접변 시

www.kci.go.kr

3) 조사대상자를 접변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조복희·이주연(2006), Chia & Costigan(2006) 등이 있으며, 양옥경 등(2007), Barry(2001), Kim & Wolpin(2008), Kwak & Berry(2001) 등은 조사대상자의 각 접변유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각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상당수의 연구(Floyd & Gramann, 1993·1995; Floyd *et al.*, 1993; Shaul & Gramann, 1998; Stodolska, 1998)가 특정 연구자(Gordon, 1964)의 개념적 틀에만 의존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이민자 여가를 문화접변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문화접변의 수준이 높을수록 미국 내 중국계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이나 여가 관련 기관, 조직에 더 많이 참가하고, 특히 스포츠 활동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Yu & Berryman, 1996). 또한 문화적 동화(영어의 선호와 사용으로 측정)와 구조적 동화(여행 또는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친구의 민족 집단으로 측정) 수준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를 여가유형별로 살펴본 Floyd & Gramann(1993)은 문화적 동화 또는 구조적 동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멕시코계 미국인의 여가참여 빈도가 대부분의 여가활동에서 미국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앵글로계와 유사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야외 레크리에이션지역 방문빈도에서의 차이는 구조적 동화수준에 따라서만 나타났으며, Floyd *et al.*(1993) 또한 문화적 동화(사용하는 언어로 측정)가 공공 레크리에이션 지역 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열 세 곳 중 세 곳에서만 유의한 영향관계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Floyd & Shinew(1999)도 백인과 흑인 간 상호접촉이 많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두 집단의 여가선호에 유사성이 많다고 하여 사회적 접촉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Stodolska(1998)는 문화접변 수준과 여가제약의 지각된 중요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문화접변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여가제약의 중요성이 감소한다고 했으며, 특히 구조적 동화나 행동 수용적 동화(차별 경험의 빈도로 측정)가 문화적 동화보다 더 많은 제약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문화접변 수준과 여가 동반자 및 여가편익의 관계를 살펴보면, Carr & Williams(1993)는 국립 산림휴양지역에 친구들이나 혼자 온 멕시코계 미국인은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방문한 사람들보다 문화동화 수준(언어능력과 선호로 측정)이 높다⁴⁾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Shaul & Gramann(1998)은 교육수준과 자녀수, 수입을 통제할 경우 문화동화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가족 관련 편익을 보다 중요하게 지각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는 가족 관련 편익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차이가 문화적 요인보다 인구통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www.kci.go.kr

4) 멕시코계 미국인은 다른 백인들보다 가족이나 친척들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r & Williams, 1993; Shaul & Gramann, 1998).

3. 국내 관련 연구

국내에서 문화접변의 시각으로 이민자의 여가를 본격적으로 고찰한 문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천석·강기정(2008)⁵⁾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에 미치는 가족여가활동의 영향을 측정한 바 있으나 유의한 관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Kim & Lee(2010)는 국내 중국 동포 근로자 대상의 연구에서 문화접변과 여가참여의 수준 간에는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여가에 대한 조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차성란(2010)은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적 여가가 집안에서의 취미활동, 집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한국어공부 등), 산책, 친구 방문이 대부분이어서 활동범위가 작으며, 취미활동으로는 음악감상과 노래부르기, 인터넷, 요리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에 따르면, 외국인 부인이 있는 가족은 여행이나 노래방, 극장가기 등 문화생활보다는 가족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며, 농촌보다는 도시 거주자,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외국인 부인의 나이가 젊을수록 가족여가활동을 자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의 여가활동은 활발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 집단과 비교할 때 가족외식, 관광·여행, 문화활동 등에서 가장 빈도가 낮다고 하였다(호남대학교 다문화센터, 2008; 차성란,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어떤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있으며, 어떤 여가활동에 참가하는가? 둘째,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문화접변유형에 따라 여가활동 선호 및 참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문화접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는 2010년 6월 중순부터 11월 하순 사이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 한족, 몽골,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출신 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 많은 중국 동포나 일본

5) 이들은 가족여가활동을 가족외식, 가족동반 친목모임, 문화활동(영화감상 등), 가족여행의 네 가지 항목으로 측정했다.

대신 몽골 출신 여성을 선정한 것은 중국 동포의 경우 민족 정체성의 문제, 일본이민자의 경우 특정 종교집단의 알선에 따른 결혼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동북아시아지역과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을 표본에 골고루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은 사회경제적 여건은 물론 문화와 여가환경이 다르고,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실력, 학력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설동훈·윤홍식, 2008; 양옥경 등, 2007) 도시와 농촌 거주자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주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한국어수업을 마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설문지가 회수된 후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몽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우, 다문화센터 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많지 않아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총 86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826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⁶⁾.

2. 설문지 작성 및 분석방법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문화접변 수준, 여가선호와 참여의 수준,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최초 한글로 작성된 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다른 번역자가 한글판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글로 번역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사용해 요인분석, 교차분석, 군집분석, 공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1) 문화접변 척도

Berry(2003)의 이차원 모형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네 가지 접변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족 정체성 유지는 MEIM을 개량한 Phinney & Ong(2007)의 6가지 측정항목을 사용했으며, 주류문화의 수용은 언어능력(말하기와 읽고 쓰기), 문화적 적응(문화인지와 문화수용), 사회적 적응(주류사회와 관계유지 및 접촉 선호)을 각 2문항씩 총 6문항으로 측정했다. 문화적 적응에 대한

6)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서울(202부), 인천(33부), 경기(성남/부천/안산/평택/오산/광주/화성/여주/이천/의정부/파주, 289부), 충청(청주/음성/청원/아산/당진/보령, 184부), 호남(군산/완주, 73부), 영남지역(대구/예천, 45부)에서 회수된 것이다.

질문은 김현주·전광희·이혜경(1997)의 연구, 그리고 사회적 적응의 측정문항은 MEIM(Gurung & Mehta, 2001에서 재인용)과 EAAM(Barry, 2001)을 참조해 작성하였다. 응답에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7)를 사용하였다.

2) 여가활동

여가활동의 종류 및 여가유형에 대한 분류는 매우 다양하다⁸⁾.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의 여가백서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이 실제 선호하고 참가하는 여가활동⁹⁾, 그리고 Floyd & Shinew(1999), Iso-Ahola, Jackson, & Dunn(1994), Lee *et al.*(2001), Stodolska (2000)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20가지 활동을 선정하였다.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활동, 실내와 실외활동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Floyd & Shinew(1999)의 제안에 따라 TV/DVD시청, 라디오 듣기, 전화통화와 같은 일상적 활동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여가유형은 Iso-Ahola *et al.*(1994), Stodolska(2000)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활동의 내용 및 공간을 중심으로 운동(실내/실외 운동), 야외활동(소풍/여행), 문화활동(영화·공연/박물관·전시회), 가정여가활동(음악/독서/학습/요리/인터넷/산책), 사교활동(외식/쇼핑/친구·친척방문/목욕·찜질방), 오락활동(음주/카드·고스톱/노래방/컴퓨터게임)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는 여가활동 참가를 얼마나 원하는가와 얼마나 자주하는가에 대하여 응답자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혀 하고 싶지 않다(전혀 하지 않는다: 1점)에서 그저 그렇다(가끔 한다: 3점), 매우 하고 싶다(매우 자주 한다: 5점)로 측정하였다.

7) 문화접변 수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저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다.

8) 여가유형은 고동우(2007)에 따르면, 여가활동의 규칙성(놀이/비놀이), 공간이동의 유무(여행/비여행), 활동공간(실내/실외), 사회적 교류(개인/사회적 여가), 여가체험의 깊이(가벼운/진지한 여가), 심리적 에너지(정신적/사회적/신체적/소모적 여가)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Kelly(1982; 백정숙·이계희, 2006에서 재인용)는 자유의지의 정도와 내재적, 사회적 의미에 따라 무조건적, 회복적, 관계적, 역할 결정적 여가, Lee *et al.*(2001)는 집 근처 여가와 원거리 여가, 그리고 Nash와 Szalai(각각 1960과 1972; 남은영·최유정, 2008에서 재인용)는 적극적, 소극적, 악영향을 주는 여가, 또는 준여가(신체회복/학습/종교/조직활동), 수동적, 완전여가 등으로 분류하는 등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9) 2010년 3월에서 4월 까지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실시한 결과,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여행(29), 쇼핑(11), 운동(7), 친구만남(6), 외식(5), 참여하는 활동은 컴퓨터하기(16), TV시청(15), 공부(12), 운동(9), 쇼핑/친구만남/음악듣기(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인구통계적 변수

개인적 특성으로 출신국가 및 나이, 학력, 직업(전업주부 또는 풀·파트타임 근로자), 가정환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월 소득, 자녀수, 남편과의 나이 차, 거주지역,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한국 내 체류기간과 다문화센터 참여 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베트남(238명)과 중국(215명) 출신 여성이 몽골(189명)이나 필리핀 출신 여성(184명)보다 다소 많았고, 연령은 20대(49.2%), 30대(35.9%), 40대 이상(14.9%)의 순이며 특히, 베트남 출신 여성의 경우에는 20대가 81.9%로 매우 많았다. 학력은 출신국가별로 상이해 몽골과 필리핀 출신은 대졸, 중국은 고졸, 베트남은 중졸 이하가 많았으며,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보다는 전업주부가 많았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대(30.6%), 200만 원대(20.6%), 300만 원 이상(12.6%), 100만 원 미만(9.1%)의 순이었으며, 모른다는 응답자도 224명(27.1%)이나 되었다. 자녀는 1명(39.3%)이나 2명(24.8%)인 경우가 많았고, 남편과의 나이차는 11-15살(26.7%), 6-10살(25.1%), 16-20살(21.0%), 5살 이하(18.7%) 순이며, 21살 이상도 70명으로 8.5%나 되었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나이차가 매우 커 94.6%가 11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전체적으로 농촌보다 도시가 많았으나, 출신국가별로는 몽골 출신 여성은 도시, 베트남 출신 여성은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항으로서 한국 체류기간을 보면, 중국과 베트남 출신 여성은 2-5년 미만인 반면, 몽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은 5년 이상이 많았고, 다문화센터 참여비율은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표본의 특성

구 분	중국(n=215)	몽골(n=189)	베트남(n=238)	필리핀(n=184)	
나 이	20대	33.2	35.4	81.9	39.7
	30대	46.3	45.5	16.4	39.1
	40대 이상	20.6	19.0	1.7	21.2
학 력	중졸 이하	23.3	1.1	50.4	1.6
	고졸	51.6	32.3	41.6	28.8
	대졸	20.0	66.7	3.4	66.3
직 업	전업주부	67.3	36.5	81.9	52.7
	풀타임 근로자	8.9	11.1	10.1	10.9
	파트타임 근로자	7.9	34.4	1.7	26.1
월 소득	100만원 미만	7.9	5.8	9.7	13.0
	100-199만원	31.6	15.9	43.7	27.7
	200-299만원	26.0	31.2	14.3	11.4
	300만원 이상	11.6	21.7	6.3	12.5
자녀수	없음	28.8	0.5	39.1	25.0
	1명	43.7	34.9	42.4	34.8
	2명	20.9	37.0	17.6	26.1
	3명 이상	6.5	27.5	0.8	14.1
남편과의 나이차	0-5세	27.7	28.0	1.7	20.7
	6-10세	33.8	36.5	3.8	31.0
	11-15세	29.1	16.9	32.8	26.1
	16세 이상	9.4	18.5	61.8	22.3
거주지역	도시	72.6	83.8	59.1	69.0
	농촌	27.4	16.2	40.9	31.0
체류기간	2년 미만	30.2	9.0	35.7	19.6
	2-5년 미만	40.5	37.0	45.0	29.3
	5년 이상	29.3	54.0	19.3	51.1
센터 참여	참여	46.3	47.6	65.1	69.4
	참여 않음	48.6	48.1	27.3	23.0

주 1. 단위는 출신국가별 구성비(%)

주 2. 학력, 직업, 월 소득, 센터 참여에서 기타 또는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았음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문화접변 측정항목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과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Berry(2003)의 이차원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요인의 수를 2개로 지정하고 직각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했으며, 각 요인은 '민족 정체성 유지'와 '주류문화 수용'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hronbach's α 값은 0.7보다 높아 충분한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

〈표 2〉 문화접변 척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항 목	적 재 값		Cronbach α
	요인 1 (민족 정체성 유지)	요인 2 (주류문화 수용)	
민족에 대한 애착	.763	.071	.800
민족에 대한 소속감	.747	-.076	
민족의 의미 자각	.720	.034	
민족 이해를 위한 노력	.700	.209	
민족 이해를 위한 대화	.675	.224	
민족 이해를 위한 시간 할애	.538	.281	
한국어 자유롭게 말하기	-.020	.773	.782
한국어 자유롭게 읽고 쓰기	-.032	.744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121	.697	
한국문화 습득의 중요성 지각	.292	.443	
한국인과 잘 어울림	.224	.705	
한국인과의 교제가 편안함	.170	.664	
고유값(eigenvalue)	3.074	2.956	
분산추출값(누적 %)	25.619.	50.251	

여가유형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고, 응답된 자료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추출한 유형 구분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여가활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측정척도의 구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 등을 근거로 운동, 야외활동, 문화활동, 가정여가활동, 사교활동, 오락활동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응답한 자료에서 나타난 신뢰도만을 확인하였다. 운동, 야외활동, 사교활동에 대한 조사 자료의 신뢰도는 여가선호 및 참가에서 각각 0.7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유형에서도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3〉 참조).

〈표 3〉 여가유형별 선호 및 참가에 대한 신뢰도 검증

여가유형	여가 선호			여가 참가			선호-참가 (M)
	M	S.D.	Cronbach α	M	S.D.	Cronbach α	
운 동	3.635	.924	.759	2.931	1.013	.738	.704
야외활동	3.995	.908	.802	3.006	1.065	.796	.989
문화활동	3.553	.966	.739	2.673	.982	.643	.880
가정여가활동	3.956	.584	.663	3.644	.655	.660	.312
사교활동	3.662	.737	.713	3.281	.765	.704	.381
오락활동	2.380	.783	.624	2.154	.774	.664	.226

3. 분석결과

1) 여가활동 선호와 참가 수준

결혼이민여성은 오락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활동(소풍/여행)과 가정여가활동을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사교활동, 운동, 문화활동을 하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오락활동(음주/카드·고스톱/노래방/컴퓨터게임)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가활동 참가는 가정여가활동, 사교활동, 야외활동의 순으로 참가하며, 나머지 운동이나 문화활동, 오락활동에 대한 참여는 보통(가끔 한다)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가 수준을 비교하면, 모든 여가활동에 대하여 선호 수준이 참가 수준보다 높았다. 특히 야외활동, 문화활동, 운동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사교활동, 가정여가활동, 오락활동에 대한 차이는 작았다. 또한 순위 비교에 있어서도 야외활동에서만 선호(1위)와 참가(3위) 간에 차이가 있는 편이고, 나머지 활동유형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접변유형에 따른 집단 구분

문화접변 유형에 따라 응답자를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유사성이 높은 집단을 분류하고, 같은 군집에 속한 대상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대상 간의 상이성을 규명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채서일, 2001).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두 가지 요인('민족 정체성 유지'와 '주류문화 수용')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군집분석 방법으로는 K-means를 사용하였다.

〈표 4〉 문화접변유형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항 목	통합 (n=187)		동화 (n=202)		분리 (n=282)		주변화 (n=155)		F값	P값
	M	S.D.	M	S.D.	M	S.D.	M	S.D.		
	민족 정체성의 유지	4.46	.37	3.37	.38	4.05	.34	3.05		
주류문화의 수용	4.11	.41	3.78	.37	3.15	.33	2.83	.38	461.531	.000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 1은 '민족 정체성 유지'와 '주류문화 수용'에 대한 평가가 모두 높게 나타나 '통합'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2의 경우, '민족 정체성 유지'는 비교적 낮게 평가했으나, '주류문화 수용'에 대한 평가는 높아 '동화'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집단 3은 집단 2와는 반대로 '민족 정체성 유지'는 비

교적 높았으나, '주류문화 수용'에 대한 평가는 낮아 '분리'유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4는 '민족 정체성 유지'와 '주류문화 수용'을 모두 낮게 평가하여 '주변화'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집단의 크기는 분리, 동화, 통합, 주변화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3) 문화접변유형 집단별 여가선호와 여가참가

문화접변유형에 따른 여가선호와 여가참가에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은 외생변수의 통제가 어려울 경우, 이를 공변량(covariate)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이다(이학식·김영, 200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Christenson *et al.*, 2006; Floyd & Gramann, 1993·1995; Floyd *et al.*, 1993; Shaul & Gramann, 1998)를 통하여 이민자의 여가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수준과 나이를 공변량으로 사용하였다. 주부 나이의 경우, 연령대에 따른 활동의 차이는 물론 자녀의 나이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여가참가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한경미·황덕순, 1990; 윤인진·김상운, 2005에서 재인용).

분석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집단 간의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Levene의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운동 참가와 오락활동 선호에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비모수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결과는 공분산분석 자료와 함께 〈표 5〉로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문화접변유형에 따라 모든 여가유형에서 여가선호와 참가에 유의한 차이($p < .01$)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유형 집단의 여가활동 선호와 참가가 모든 여가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화 유형 집단의 여가선호와 참가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여가선호보다 여가참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문화접변유형에 따라 여가선호와 여가활동 참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화접변 유형 집단별 여가선호의 강도를 살펴보면, 모든 여가활동에서 통합유형이 가장 높고 분리, 동화, 주변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합유형 집단과 분리 유형 집단 간의 차이는 문화활동, 가정여가활동, 그리고 사교활동에서만 유의한($p < .05$) 것으로 나타났고, 분리유형 집단과 동화 유형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문화활동에서만 나타났다. 그리고 동화유형과 주변화유형 집단 간에는 모든 여가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통합유형이나 분리유형 집단과 주변화유형 집단 간에는 다중비교를 실

시한 모든 유형(운동, 야외·문화·가정여가·사교활동)에서 유의한 차이($p < .05$)가 발견되었다.

〈표 5〉 문화접변유형 집단별 여가선호와 여가참가

항 목		통합 (n=187)		동화 (n=202)		분리 (n=282)		주변화 (n=155)		F값 (χ^2 값)	P값
		M	S.D.	M	S.D.	M	S.D.	M	S.D.		
운 동	선호	3.85	.95	3.60	.87	3.59	.90	3.50	.97	4.510 (47.884)	.004 (.000)
	참가	3.36	1.00	2.91	.98	2.83	.92	2.62	1.08		
야외활동	선호	4.19	.79	3.88	.94	4.04	.93	3.83	.92	6.651	.000
	참가	3.56	1.03	3.02	1.04	2.81	1.00	2.67	1.01		
문화활동	선호	3.81	.93	3.42	.97	3.59	.94	3.37	.99	8.101	.000
	참가	3.13	.97	2.70	.92	2.56	.92	2.32	.98		
가정여가 활동	선호	4.16	.53	3.91	.60	3.95	.55	3.79	.63	12.095	.000
	참가	3.96	.62	3.64	.67	3.63	.59	3.30	.62		
사교활동	선호	3.89	.65	3.54	.75	3.67	.71	3.54	.81	9.521	.000
	참가	3.66	.72	3.32	.77	3.18	.72	2.95	.69		
오락활동	선호	2.57	.86	2.29	.80	2.37	.72	2.28	.75	13.627	(.003)
	참가	2.44	.83	2.15	.79	2.06	.70	1.97	.74		

주 1. 운동 참가와 오락여가 선호의 경우, 집단 간의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있어 Kruskal-Wallis 검정의 결과인 χ^2 통계량과 유의확률을 제시하였음

주 2.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운동 참가의 평균 순위는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가 각각 510.25, 411.82, 387.25, 346.72이고, 오락활동 선호는 462.94, 381.65, 416.13, 387.75로 나타났음

주 3. 기술통계량(평균값과 표준편차)은 공변량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문화접변유형에 따른 차이는 여가선호보다 여가참가에서 크게 나타났다. 먼저 통합유형 집단은 99% 신뢰수준에서 동화나 분리, 주변화 유형 집단보다 야외활동, 문화활동, 가정활동, 사교활동, 오락활동을 모두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ruskal-Wallis 검정의 평균 순위를 보면, 통합유형 집단의 운동 참가는 동화, 분리, 주변화 유형의 집단보다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주변화 유형 집단은 여가활동 참가가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유형의 집단과는 야외활동, 문화활동, 가정여가활동, 사교활동, 오락활동 참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였으며, 동화 유형 집단과도 야외활동, 문화활동, 가정활동, 사교활동 참가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그리고 분리 유형의 집단과 비교하면, 모든 유형의 여가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으나, 그 차이는 적어 문화활동, 가정여가활동, 사교활동 참가에서만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특히 오락활동에서 동화, 분리, 주변화 유형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주목된다. 한편 동화와 분리유형 집단의 여가참가를 비교하면, 가정여가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모두에서 동화유형 집단의 참여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¹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5$)는 없었다.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다중비교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여가유형에서 여가활동 선호와 참가의 강도는 통합유형 집단이 가장 크고 주변화 유형이 작으며, 동화유형과 분리유형 집단은 중간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동화유형과 분리유형 집단을 비교하면, 여가선호에서는 분리유형 집단이 모든 여가유형에서 크지만, 여가참가에서는 대부분의 여가유형에서 동화유형 집단이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문화접변 유형 집단 간의 차이는 여가활동 선호보다 참가에서 크게 나타나 주목된다.

4) 문화접변유형 집단별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문화접변유형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나이와 월소득, 거주 지역, 센터 참여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출신국가, 학력, 직업, 자녀수, 남편과의 나이차, 체류기간에서는 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통합유형은 출신국가별로는 몽골과 중국 출신이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 직업은 파트타임 근로자, 자녀수는 2명 이상, 남편과의 나이차는 10세 이하, 체류기간은 5년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다. 동화유형은 중국과 필리핀 출신, 대졸, 파트타임 근로자, 자녀수는 2명, 5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여성에게서 응답된 표본의 분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분리유형은 베트남 출신, 중졸 이하, 전업주부, 자녀가 없고, 남편과의 나이차는 16세 이상으로 크며, 체류기간은 2년 미만자에게서 높게 나타나 통합 또는 동화유형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베트남 출신, 고졸 이하, 전업주부와 풀타임 근로자, 자녀가 없고, 남편과의 나이차는 11세 이상, 체류기간은 중간수준(2-5년 미만)에게서 주변화유형이 높게 나타나 분리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www.kci.go.kr

10) <표 6>에서는 동화유형 및 분리유형의 가정여가활동 참가가 각각 3.64와 3.63이었지만, 공변량이 반영된 다중비교에서는 각각 3.62와 3.65로 분리유형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 문화접변유형 집단별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계	χ^2 값	P값	
	(n=187)	(n=202)	(n=282)	(n=155)				
출신 국가	중국	29.9	34.2	22.7	16.8	26.0	53.177	.000
	몽골	31.6	17.3	22.3	20.6	22.9		
	베트남	18.7	19.3	36.2	40.0	28.8		
	필리핀	19.8	29.2	18.8	22.6	22.3		
나이	20대	46.8	42.1	55.7	49.7	49.2	10.459	.107
	30대	36.0	40.1	31.9	37.4	35.9		
	40대 이상	17.2	17.8	12.4	12.9	14.9		
학력	중졸 이하	12.8	18.8	24.8	27.7	21.2	27.373	.001
	고졸	36.4	38.1	39.7	43.2	39.2		
	대졸	47.1	40.6	31.2	26.5	36.2		
직업	전업주부	48.4	56.9	68.1	69.7	61.2	35.725	.000
	풀타임 근로자	9.7	10.9	8.2	13.5	10.2		
	파트타임 근로자	23.1	19.3	13.8	8.4	16.2		
월 소득	100만원 미만	7.5	9.9	9.2	9.7	9.1	15.253	.228
	100-199만원	25.7	30.7	31.2	35.5	30.6		
	200-299만원	26.7	21.3	17.0	18.7	20.6		
	300만원 이상	13.9	15.3	11.0	10.3	12.6		
자녀수	없음	17.6	22.3	29.1	27.1	24.5	22.250	.008
	1명	36.9	37.6	41.8	40.0	39.3		
	2명	27.8	30.2	20.6	21.9	24.8		
	3명 이상	17.6	9.9	8.5	11.0	11.4		
남편과의 나이차	0-5세	22.0	23.8	13.9	16.8	18.7	22.332	.008
	6-10세	30.6	26.2	23.5	20.0	25.1		
	11-15세	24.2	25.7	26.7	31.0	26.7		
체류 기간	16세 이상	23.1	24.3	35.9	32.3	29.5	23.572	.001
	2년 미만	23.0	18.8	30.1	23.9	24.6		
	2-5년 미만	35.3	33.7	41.8	42.6	38.5		
거주 지역	5년 이상	41.7	47.5	28.0	33.5	36.9	1.806	.614
	도시	72.0	66.7	71.4	71.4	70.4		
센터 참여	농촌	28.0	33.3	28.6	28.6	29.6	5.799	.446
	참여	57.2	61.7	56.9	51.6	57.2		
	참여 않음	37.4	34.3	35.9	40.0	36.7		

주 1. 단위는 문화접변 유형별 구성비(%)이며, 계는 항목별 구성비를 나타냄

주 2. 학력, 직업, 월 소득, 센터 참여에서 기타 또는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았음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어떤 여가활동에 참가하는지 문화접변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실증분석에 의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여성은 야외활동과 가정여가활동을 가장 하고 싶어 했으며 다음으로 사교활동, 운동, 문화활동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음주, 고스톱 등 오락활동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남대학교 다문화센터(2008; 차성란, 2010에서 재인용)의 조사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관광·여행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 여가백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국내외 여행, 운동, 독서의 순이며, 문화·예술 관람활동 역시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여행을 포함한 야외활동은 결혼이민여성이나 한국여성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운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한 결혼이민여성의 참여 욕구는 한국여성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둘째, 결혼이민여성의 여가유형별 참가 수준은 가정여가활동, 사교활동, 야외활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이나 문화활동, 오락활동에 대한 참여는 '가끔 한다'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가 수준을 비교하면, 모든 여가활동에 대하여 선호 수준이 참가 수준보다 높았으며, 특히 야외활동, 문화활동, 운동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Rojek(2000; 윤인진·김상운, 2005에서 재인용)이 지적하였듯이 여성들의 여가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사회적 압력을 피하기 위해 가정 내 여가생활을 많이 하고(Hibbler & Shinew, 2002; Stodolska, 2000),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적 여가가 집안에서의 취미활동과 한국어공부, 산책, 친구 방문 등 집 주변 활동에 집중된다는 차성란(2010)의 조사결과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 여가백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에서 여성들의 여가활동 참여순위(1-5순위 합산 기준)를 보면, TV·라디오(42.4%), 영화(27.5%), 목욕·찜질방(20.5%), 쇼핑(18.4%), 인터넷(15.0%), 독서(13.7%), 등산(12.1%), 게임(12.0%), 음주(6.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금번 조사와 비교하면,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여성 모두 가정여가활동과 사교활동에 비교적 많이 참여하지만 결혼이민여성은 한국여성에 비해 운동과 문화활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국인의 주요 여가활동 목록에 컴퓨터게임과 음주가 포함되고 평균 노래방 이용 경험률(51.8%)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락활동의 참가 빈도 역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문화접변유형에 따른 여가선호와 여가활동 참가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여가유형에서 여가활동 선호와 참가의 강도는 통합유형 집단이 가장 크고 주변화 유형이 작으며, 동화유형과 분리유형 집단은 중간 수준에 있었다. 그리고 동화유형과 분리유형 집단을 비교하면, 여가선호에서는 분리유형 집단, 그리고 여가참가에서는 동화유형 집단의 강도가 대부분의 여가유형에서 크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접변 유형 집단 간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여가활동 선호보다 참가에서 크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유형 집단의 문화적응이 가장 우수하고, 주변화유형이 뒤떨어지며, 나머지 두 유형은 중간수준에 있다는 선행연구(Berry, 2003; Christenson *et al.*, 2006; Eyou *et al.*, 2000)와 일치한다. 또한 중간 수준의 두 집단 가운데 가정여가활동을 제외한 모든 여가유형에서 동화유형 집단이 분리유형 집단보다 여가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문화접변의 수준과 여가활동 빈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Stodolska & Yi, 2003; Yu & Berryman, 1996)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촉진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연(2008)은 이민자의 문화적응 정도가 여가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여가경험은 새로이 정착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넷째, 문화유형 집단 간의 차이는 나이나 월 소득, 거주 지역, 센터 참여 여부가 아니라 출신국가, 학력, 직업, 자녀수, 남편과의 나이차, 체류기간 등에 따라 나타났다. 통합유형 집단에는 몽골과 중국 출신이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 직업은 파트타임 근로자, 자녀 2명 이상, 남편과의 나이차는 10세 이하, 체류기간은 5년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화유형 집단에는 베트남 출신, 고졸 이하, 전업주부와 풀타임 근로자, 자녀가 없고, 남편과의 나이차는 11세 이상, 체류기간은 중간수준(2-5년 미만)이 많았다. 또한 통합과 동화유형, 그리고 분리와 주변화유형 집단 간에 인구통계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된 점도 주목된다.

문화적응과정은 이민자의 성격이나 피부색과 같은 신체적 특성, 사회경제적 계층, 어떤 민족에 속하는가 등 개인적, 집단적 수준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다(정진경·양계민, 2004; Kwak & Berry, 2001; Mendoza & Martinez, 1989; Stodolska & Alexandris, 2004). 먼저 출신국가별 문화적응 수준을 살펴해보면, 설동훈·윤홍식(2008)¹¹⁾은 몽골과 중국 출신 여성의 사회적 적응이 우

11) 이 연구는 전국의 결혼이민여성 885명을 조사한 결과이나, 사회적 적응을 남편과의 나이차,

수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양옥경 등(2007)¹²⁾은 통합유형 영역에서 베트남과 중국 출신 여성의 점수가 높고, 필리핀 출신은 동화유형 영역에서 점수가 특히 낮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숙희(2008)¹³⁾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몽골 여성이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여성에 비해 다원주의보다 동화주의를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금번 조사결과까지 종합하면, 중국과 몽골 출신 여성의 문화적응이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다소 우수하다고 여겨지나,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아직 출신국가별 문화적응의 차이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학력(양옥경 등, 2007; Phinney, 1990; 조복희 등, 2005에서 재인용)과 체류기간(Chia & Costigan, 2006; Kwak & Berry, 2001; Yu & Berryman, 1996)은 문화적응의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고, 양옥경 등(2007)의 조사에서도 직업이 있는 여성은 전업주부보다 통합유형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녀수는 체류기간과 상당 부분 비례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기고 성장할수록 자녀의 교육 등을 위해보다 한국생활에 적극적으로 된다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에 대한 태도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김은미·양옥경·이혜영, 2009; 양옥경 등, 2007)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화적응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민시기의 나이이지 조사 시점에서의 나이가 아니라는(Castro, 2003; 조복희 등, 2005에서 재인용; Chia & Costigan, 2006)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금번 조사의 결과가 선행연구와 달라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는 변수도 있다. 양옥경 등(2007)은 남편과의 나이차가 많은 집단일수록 동화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소득이 적을 경우 통합영역이 낮고 주변화영역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센터에 출석하는 결혼이민여성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인 등과의 접촉이 많아 문화적응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 적응은 결혼이민여성

부부관계 및 친족·이웃관계 만족도, 자조집단 참여 여부로 측정했다.

12) 양옥경 등(2007)은 서울에 거주하는 304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이 가운데 필리핀 출신은 표본수가 22명에 불과하고, 몽골 출신은 태국 출신 등과 함께 기타로 분류하여 해석에 주의를 요구된다.

13) 고숙희(2008)는 결혼이민여성 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베트남 출신 여성 이외에는 출신국가별 표본수가 20명에 미치지 못한다.

의 여가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신 국가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하여 무관심한 동화유형보다는 이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통합유형이 여가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리유형의 경우, 동화유형의 여성보다는 여가참가가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적극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높아 여가활동이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적극적 여가생활과 문화적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여가참가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은 대부분 육아 및 가사노동에 따른 부담, 경제적 여건, 여가정보의 제한 등으로 적극적인 여가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센터가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장소이자 결혼이민여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여가참여와 한국생활 적응이 선순환 된다는 정책적 마인드의 조성과 함께 각종 여가 프로그램 및 보육을 위한 인력, 시설의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회성 행사대신 여가선호와 여가참여에 있어서 차이가 큰 야외활동, 문화활동, 운동 등이 여가 프로그램에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결혼이민 여성의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한국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남편,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출신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는 결혼이민여성의 민족 정체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자부심을 높이고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적 여가활동을 지원해 문화적응을 촉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같은 출신 국가의 사람들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문화센터가 지역의 부녀회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한국인과 함께 어울리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가활동을 통한 한국인과의 접촉은 자연스러운 교류관계를 형성해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소속감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현주 등, 1997; Hibbler & Shinew, 2002). 또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적 도움은 물론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인과의 접촉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여가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여가생활이

문화적응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여가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다문화센터 이용자이고, 표본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을 갖는다. 또한 여가참여 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을 문화적 인지, 사회적 접촉 등으로 세분화하여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은 미국 등 다른 이민자 연구에서 밝혀진 적응경로와 다를 것이므로 이들의 적응유형이나 여가동반자 유형,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정교한 여가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부나 가족의 여가를 함께 탐구한다면 결혼이민여성의 여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 고동우(2007). 『여가학의 이해』. 서울: 세림출판.
- 고숙희(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213-234.
- 김은미·양옥경·이혜영(2009). 『다문화 사회, 한국』. 서울: 나남.
- 김현주·전광희·이혜경(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0, 105-139.
- 남은영·최유정(2008). 사회계층별 여가격차: 여가활동의 유형 및 특성을 중심으로. 『KGSS 심포지엄 자료집』.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2008 여가백서』.
- 백정숙·이계희(2006). 이주 노동자의 여가제약요인과 여가행태. 『관광레저연구』, 18(2), 243-259.
- 설동훈·윤홍식(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양옥경·김연수·이방현(2007). 서울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윤인진·김상운(2005). 여가활동의 사회집단별 차이와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3(2),

162-202.

- 이주연(2008). 재미한인의 여가, 그들의 민족정체성. 『문화와 사회』, 4, 6-42.
- 이학식·김영(2001). 『SPSS 10.0 매뉴얼』. 서울: 법문사.
- 정진경·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정천석·강기정(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5-23.
- 조복희·이주연(2006).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접변 유형 및 학교적응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27(1), 1-17.
- 차성란(2010). 결혼이주여성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정 여가생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95-812.
- 채서일(2001).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엔엠북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10_12.jsp
- 통계청(2007).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 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 행정안전부(2009. 7).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 Allison, M.(2000). Leisure,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2(1), 2-6.
- Barry(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tion Health*, 3(4), 193-197.
- Berry, J.(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Chum, Organista, P., & G. Marin(Ed.),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pp. 17-3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rr, D., & Williams, D.(1993). Understanding the role of ethnicity in outdoor recreation experie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1), 22-38.
- Chia, A., & Costigan, C.(2006). A person-centered approach to identifying acculturation groups among Chinese Canad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5), 397-412.
- Christenson, O., Zabriskie, R., Eggett, D., & Freeman, P.(2006). Family acculturation, family leisure involvement,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Mexican-America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8(4),

475-495.

- Eyou, M., Adair, V., & Dixon, R.(2000). Cultural ident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 Chinese immigrants in New Zealand. *Journal of adolescence*, 23, 531-543.
- Floyd, M.(1998). Getting beyond marginality and Ethnicity: the challenge for race and Ethnic studies in leisure resear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1), 3-22.
- Floyd, M., Bocarro, J., & Thompson, T.(2008). Research on race and ethnicity in leisure studies: A review of five major journal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1), 1-22.
- Floyd, M., & Gramann, J.(1993).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structural assimilation in resource-based recreation: the case of Mexican America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1), 6-21.
- Floyd, M., & Gramann, J.(1995).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in a recreation contex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2), 192-199.
- Floyd, M., Gramann, J., & Saenz, R.(1993). Ethnic factors and the use of public outdoor recreation areas: The case of Mexican Americans. *Leisure Sciences*, 15, 83-98.
- Floyd, M., & Shinew, K.(1999).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leisure style among whites and African Americans: toward an interracial contact hypothe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1(4), 359-384.
- Freysinger, V., & Harris, O.(2006). Race and leisure. In C. Rojek, S. Shaw, & A. Veal(Ed.), *A Handbook of Leisure Studies*(pp. 250-270). PalgraveMacmillan.
- Gomez, E.(2002). The ethnicity and public recreation participation model. *Leisure Sciences*, 24, 123-142.
- Gramann, J., & Allison, M.(1999). Ethnicity, race, and leisure. In E. Jackson, T. Burton, & T. Burton(Ed.),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pp. 283-297). Pinnacle Books.
- Gurung, R., & Mehta, V.(2001). Relating ethnic identity, acculturation, and attitudes toward treating minority cli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7(2), 139-151.
- Hibbler, D., & Shinew, K.(2002). Interracial couples' experience of leisure: a social network approa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2), 135-156.

- Iso-Ahola, S., Jackson, E. & Dunn, E.(1994). Starting, Ceasing, and replacing leisure activities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3), 227-249.
- Kim, J., & Lee, H.(2010). The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on, self-esteem, and leisure participation of foreign worker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10(1), 45-60.
- Kim, E., & Wolpin, S.(2008). The Korean American family: Adolescents versus parents acculturation to American culture.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5(3), 108-116.
- Kwak, K., & Berry, J.(2001). Generational differences in acculturation among Asian families in Canada: A comparison of Vietnamese, Korean, and East-Indian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6(3), 152-162.
- Lee, J., Scott, D., & Floyd, M.(2001). Structural inequalities in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A multiple hierarchy stratification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4), 427-449.
- Lieber, E., Chin, D., Nihira, K., & Mink, I.(2001). Holding on and letting go: Identity and acculturation among Chinese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7, 247-261.
- Mendoza, R., & Martinez, J.(1989). The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In A. Baron, Jr.(Ed.), *Explorations in Chicano Psychology*(pp. 71-82). New York: Holt.
- Phinney, J., & Ong, A.(2007). Concet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ethnic identit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54(3), 271-281.
- Riddick, C., & Stewart, D.(1994). An examination of the life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leisure in the lives of older female retirees: A comparison of balcks to whi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1), 75-87.
- Shaull, S., & Gramann, J.(1998). The effect of cultural assimilation on the importance of family-related and nature-related recreation among Hispanic America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1), 47-63.
- Stodolska, M.(1998). Assimilation and leisure constraints: dynamics of constraints on leisure in immigrant popul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4), 521-551.

- Stodolska M.(2000). Changes in leisure participation patterns after immigration. *Leisure Sciences*, 22, 39-63.
- Stodolska M., & Alexandris, K.(2004). The role of recreational sport in the adaptation of first generatio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3), 379-413.
- Stodolska, M., & Yi, J.(2003). Impacts of immigration on ethnic identity and leisure behavior of adolescent immigrants from Korea, Mexico, and Poland.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5(1), 49-79.
- Yu, P., & Berryman, D.(199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acculturation and recreation participation of recently arrived Chinese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 251-173.
- Wolch, J., & Zhang, J.(2004). Beach recreation, cultural diversity and attitudes toward nat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6(3), 414-443.
- www.columbia.edu/cu/ssw/projects/pmap

2011년 3월 30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1년 4월 12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1년 4월 20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